

동북아시아의 환경문제와 여성의 역할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I. 들어가는 말

2002년 9월2일에서 11일까지 남아프리카의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예정인 지구정상회의를 1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 일본, 한국의 여성환경인들이 함께 하는 동북아 여성환경회의가 열리게 된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며 크게 환영한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여성들의 대안’을 주제로 하고 있는 금번 회의의 목표는 ①여성의 관점에서 본 환경과 개발문제에 대한 시각공유 ②중국, 일본, 한국의 여성환경운동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환경의제를 개발하며 ③한·중·일간의 여성환경네트워크 형성의 기초를 마련하고 ④동북아차원의 민간환경협력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회의의 성과물로서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어 있다.

발제자는 이 회의가 동북아 여성환경인들의 2002년 세계지구정상회의를 위한 동북아 여성환경인들의 1차준비회의로서 같은 유교문화권과 비영어사용권에 속해 있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나라들의 여성환경인들이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작업을 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것은 <동북아 여성환경인선언>을 제정하는 것일 수 있다. 이 회의의 결의문이 그 초안이 될 수도 있겠다. 이 작업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년동안 이번 서울회의에 이어서 동경 다음에는 북경 등에서 지속적인 회의개최를 통해 성숙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른 한편 동북아여성환경인들은 지구정상회의를 위한 다양한 준비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그 향방을 지켜볼 뿐만 아니라 견해를 피력하고 기여해야 한다. 다행인 것은 이미 여기에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일본의 오다 유끼코선생, 중국의 쉐리 리아오 회장, 한국의 박은경 박사를 비롯한 동북아의 여성환경인들이 이미 개최된 준비회의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나에게 맡겨진 기초발제의 주제는 ‘동북아시아의 환경문제와 여성의 역할’이다. 발제자의 역량의 한계와 시간적인 제약으로 단지 논의의 장을 위한 말문을 여는 것으로 맡겨진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

II. 여성이 보는 동북아시아의 환경문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동북아지역의 공동대처가 필요한 환경문제로는 ①한·중·일의 계속적인 에너지 소비증가로 대기오염은 물론 세계3대 산성비 피해지역으로 지목 ② 황사문제의 발생원인 중국과 몽골의 산림개발과 경제개발로 인한 토양유실과 사막화 현상 ③황해 및 동해의 해양과 하천오염 ④동일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동북아지역의 철새보호 등 생물다양성 보전과 자연생태계보전의 문제 ⑤한국과 일본의 높은 인구밀도와 중국의 세계인구 1/4점유 그리고 계속되는 인구증가추세 ⑥자원다소비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문제 ⑦소득증가와

식생활변화로 인한 식량부족문제 ⑧냉전분위기 잔재로 인한 군사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서구를 능가하는 생산력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동북아를 포함한 아시아의 경제력, 소비력, 인구증가 추세는 이 지역을 최악의 오염지대로 만들 뿐만 아니라 지구운명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세계는 그 동향을 주목하고 있다. 동북아의 환경보전을 위한 과제는 어떤 구실로도 뒤로 미루어 놓을 수가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동북아여성환경인들의 역할도 촉구될 수밖에 없다.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지구환경문제의 근원적인 요인은 소비재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와 인구증가와 도시화 그리고 급변 지구정상회의의 주제인 빈곤문제로 간주하고 있다. 인간의 삶의 양식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대목이다. 최근 지구문명의 종말을 우려하는 식자들간에는 과연 인간의 욕망의 억제 가능한가라는 논쟁들을 펼치고 있다. 유엔의 제21의 제4장에서 촉구하고 있는 생산과소비양식변화의 실천이 절실하다. 리우+5인 유엔환경특별총회에서 5년간의 의제21 실천성과평가에서 가장 부진한 사항으로 지적된 것은 환경보전을 위한 가장 원초적인 과제인 제4장이 실천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그 총회에 참가했던 세계의 여성환경인들은 회의기간 내내 즐기차게 '실천(Action)을 외쳤던 것이다.

여성환경인들은 오늘의 환경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고 거창해도 지구상의 모든 생활인들이 각기 선자리(가정, 직장)에서 작은 실천(물한컵, 전기한등, 종이한장 아끼는 것을 비롯한 친환경인의 생활수칙 준수)을 하는데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문제를 발생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다.

여성환경인들의 철저한 자원절약 원칙의 생활실천은 기업의 환경친화적인 생산과 정부의 행정을 견인해내는 동력이 된다고 믿고 있다. 여성환경인들은 또한 지구환경악화가 지속되게 하고 있는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구조적인 폐악도 꿰뚫어 보고 있다.

여성환경인들은 오늘의 지구환경문제가 강자의 논리에 근거한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와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성환경인들이 오늘의 심각한 지구환경문제를 초래한 지난 반세기동안의 무분별한 개발을 지켜보며 지속가능성을 개념화하는 작업에서 이 두 사안이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서 여성의 환경과 개발에 대한 인식과 행동에 변화가 생겼다.

예를 들어서 개발도상국에서는 개발과정이 빈곤의 심화, 경제 및 성적 불균형의 심화, 환경악화와 그로 인해 빈민층이 생계와 생명위협에 직면하게 된 사실을 문제삼게 되었다. 그런가하면 선진국에서는 강자의 논리의 주축인 인간중심주의와 남성중심주의의 대안으로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사이의 새로운 관계의 패러다임으로서 에코페미니즘을 탄생시켰다.

이 두 흐름의 주장들은 개발위기의식의 산물인 지속가능발전논의를 하는 회의들에서 중요한 의제로 자리잡게 되었고 지속가능성의 환경적 측면만이 아닌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는데 여성의 목소리가 보태지게 되었다.

III. 2002년 세계지구정상회의와 여성

오늘날 환경문제는 지구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되는 단계에 와 있다. 국제금융 및 무역기구와 다국제기업에 의한 국경없는 경제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환경문제도 지구규모로 확대되고 있어서 현세대인의 환경보전노력이 각 국가, 또는 각 지역의 독자적인 개선노력과 병행해서 국제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지구정상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환경관련 국제회의를 주시한다.

2002년 세계지구정상회의는 여성환경인들에게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성에 대한 쟁점들이 재 성관점화(Re-engender)하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예고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영어의 젠더(gender)와 섹스(sex)를 우리 3개국의 언어로 번역하면 같은 '성'이라고 하고 있는데 영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섹스는 생물학적인 성기능의 차이를 그리고 젠더는 사회,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성의 차이를 지칭하고 있어서 우리말 표기로는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성'이란 젠더를 의미한다.

영국의 UNEP가 세계지구정상회의 준비자료의 일환으로 발간한 <뉴딜-A New Deal>이라는 책자에 실린 미누 험마티(Minu Hemmati)의 '여성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글에서 보면 의제21의 실천성과와 향후 실천프로그램을 여성의 관심사와 필요사항 그리고 기여사항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전향적으로 분석한 미래에 대한 정책결정도 포함된다고 한다. 험마티는 여성운동은 분연히 일어나서 여기에 도전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1995년도의 UNDP의 자료에 의하면 '인간발전이 성관점화(engender)가 되지 않는 한 위험(endanger)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여성들이 전적으로 그리고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의 어느것 하나도 만연되어 있는 성적불평등과 불공정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성취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여성의 권리는 인간의 권리이며 유엔의제21의 제24장과 북경여성행동계획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전분야의 결의과정에서 성의 주류화의 가동이 시작된 것이다.

험마티는 그의 글에서 세계지구정상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하고 있다. '그동안 각계의 노력으로 성취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우선해야할 과제는 성문제에 대한 각성과 성주류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지구정상회의를 앞두고 여성학자, 과학자, 경제학자 등의 학계의 연구조사와 기여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여성은 혁명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은 남성과의 자리바꿈을 바라지 않는다. 다만 남성들과 대등한 참여를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활동과정에 여성의 대등한 참여는 과거에는 없었던 혁명적인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재정이 필요한데 재원은 불투명하다'라고 한다. 재정문제에 관한한 우리3개국의 사정도 이와 다를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재원확보의 문제가 또 하나의 여성환경인들이 모색해야할 과제이다.

금번 세계지구정상회의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회에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NGO 여성 코카스는 ①여성의 권리를 주장하고 정부로 하여금 여성NGO들이 회의참가준비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그리고 회의참가를 위해 지원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일 ②최신 연구결과와 확실한 정보를 근거로 논의된 성인지적인 과제들과 준비된 정책 및 전략들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두가지 전략을 기본원칙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15/10/98 2

그 접근방법으로서는 첫째 전략은 유엔CSD위원회와 지구정상회의 준비회의에 보내는 건 의문이나 제출문건을 통해 아주 강력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며 두번째 전략은 회의석상에서 여성들이 현장에서 터득한 실경험과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다. 여성NGO들이 과거에도 활용한 전략이다. 여성들은 2중의 공통적인 정치적 접근방법을 활용해 오고 있다. 하나는 제도권밖에서 비판활동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도권안에서 목적성취를 꾀하는 것이다. 금번 회의에서도 우리는 같은 접근방법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험마티는 여성환경인들이 지구정상회의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여성코카스는 세계적인 여성NGO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여성문제와 성인지적인 프로그램과 관련있는 유엔기구들과 긴밀한 연락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과제로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①광범위한 여성NGO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투명하고 포용적인 WSSD의 우선과제를 확정하고 ②2002년에 대비한 NGO문건에 제시된 우선과제와 CSD나 Prepcomm의 여타문건중의 성인지성을 확인하는 일 ③광범위하게 활용될 여성코카스의 회의자료와 토론자료를 개발하는 일 이것들은 지역특성을 형평성있게 반영하기 위해 여러 지역 사람들의 공동작업으로 작성할 것 ④NGO, 정부, 유엔기구 등 모든 이익집단들에게 여성의 우선과제와 성인지성을 관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배포하여 앞으로 있을 점검과 토론에서 반영되도록 하는 일 ⑤개발된 자료는 정부를 비롯한 각 집단들에게 성주류화의 성과를 거둘수 있게 하기 위해 시간여유를 두고 일찍 배포하는 것 등이다.

앞으로 1년을 앞두고 있는 세계지구정상회의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에 대해 유엔기구에서 여성과 지속가능발전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험마티의 글을 통해 짐작해보면서 회의참가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VI. 지속가능발전과 여성의 엠파워먼트

‘지속가능발전’개념은 1992년 리우회의 이후 인류의 공동의 명제로서 자리매김되었다. 때를 같이하여 ‘가버넌스(협치)’의 이론화작업이 시작되었다. 정부가 주도하는 통치(government)의 시대가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는 가버넌스의 시대로 이동하는 시대적 조류가 형성되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구환경문제의 관리와 운영을 통합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 1992년 지구 가버넌스(global governance)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지구환경관리운영에 있어서 특히 시민운동과 NGO의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NGO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배경에는 효율을 추구하는 시장기능과 경직되어 있는 정부정책과 관료조직의 한계 때문이다. NGO가 지구의 공공재의 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국익추구에서 자유롭고 국경을 초월한 연대가 가능해서 국가간의 대립을 제어하고 조정할 수 있어서이다. 최근의 ‘세계화’추세에 대한 저항운동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반환경적인 사안을 저지해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의 지구적인 연대를 통해 국제정치를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그 규모와 국제적인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다. 국내의 위기상황 극복에도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는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는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공적인 영역의 정부와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적인 영역인 시장과의 파트너쉽에서 대등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엠파워먼트를 필요로 한다. 엠파워먼트란 우리는 '세력화'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해 낼수 있는 능력과 영향력인 '힘'을 얻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반엠파워먼트란 '힘=권력 또는 경제력'의 기반에 접근의 기회가 박탈된 현상을 말하며 오늘의 시민사회가 처해 있는 현실을 두고 한말 같다.

특히 여성의 무력화현상은 시간제약으로 현황을 나열하지 못하지만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국제회의에서의 해묵은 단골의제로서 남아 있다. 여성의 엠파워먼트란 여성들이 자기능력을 키워서 얻은 힘으로 억압의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젠더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여성의 힘은 여성들이 연대를 통해 상호협력하는데서 배가 될 수 있다. 여성을 사회적인 억압구조에서 해방하고 사회적평등, 공정, 엠파워먼트를 달성하기 위해 성에 대처한 개발계획으로서 지난 10년간 젠더계획(gender planning)이라는 전략이 시동되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Gender 계획과 발전>이라는 책을 펴낸 캐롤라인 모저(Caroline Moser)는 성의 평등은 시민사회, 지역공동체, 가정에서 새로운 힘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변혁의 도입점이며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는데 절대 필요한 전제조건이라고 하고 있다.

V. 환경문제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

이 회의의 주제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여성의 대안'이다. 오늘의 지구환경문제가 남성들이 발휘한 강자의 논리의 산물이라고 할 때 주변부에 있어서 아직도 가능성으로만 남아 있는 여성의 잠재력과 시각이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고 여성의 참여자체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오늘의 여성들은 세계13억의 절대빈곤층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기의 삶의 조건을 자기가 만드는 결의기구에의 참여도는 한자리수에 머물러 있는가하면 취업의 기회와 노동한 대가는 남성보다 뒤떨어지며 임신과 해산으로 매일 1600명이 죽어가는데 더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노출은 지구상의 어떤 인간군에게 보다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도 여성의 독자적이며 특수한 역할이 있을 수 있다.

남성들에 의한 억압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강자들에 의해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피억압자들과 자연에 대한 연민의 정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성의 시각이 대안을 창출해 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여성의 특별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그 역할이란 바로 약자와 강자가 함께 세상을 만들어가고 살게 하는 것이다.

일본의 여성운동이론가인 우에노 치즈코교수는 <여성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가>라는 책에서 '남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여성도 할 수 있다' '남성이 구할 수 없는 세상은 여성도 구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구할 수도 있다는 여성원리를 여성들이 보다 강하게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을 구하는 책임을 여성들만이 질 필요는 없으며 세상을 구하는 일은 여성원리를 담지하고 있는 남성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VI. 동북아 여성환경인의 연대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란?

개개인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실천운동도 혼자서는 그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터이다. 하물며 오늘의 지속가능하지 못한 세계질서의 큰 수레바퀴를 연대하지 않고 그 방향을 돌려보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금번 회의에서 동북아여성환경인의 네트워크는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데 묻게되는 것은 묶어진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과연 3개국정부가 집착하고 있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과 개발위주의 국가시책 또는 소비미덕의 거센 생활풍조에 제동을 가할 힘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라면 무엇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의 동북아 여성환경인의 사명을 다하는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을 함께 하기 위해 여기에 우리는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

우리 각기가 속해 있는 동북아지역의 국가들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동북아를 말하기는 힘들다. 국민소득이 세계 1,2위를 다투는 일본이 있는가하면 세계 1/4의 인구를 안고 있는 중국이 현재의 성장추세를 지속하는 경우 2025년경에는 1억7천만톤의 곡물을 수입해야 하는데 이 양은 생산국이 수출할 수 있는 전량에 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아직도 분단된 상황에서 남북이 모두 엄청난 군비지출을 하고 있는가하면 경제성장의 정도에 비해 민주주의가 아직 정확하지 못한 정치후진성으로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여성환경인들이 지속가능한 지역환경의 걸림돌인 국가간의 갈등을 만일에 뛰어 넘어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일을 성사시킬 수 있다면 그 묘책은 분명히 오늘의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국제환경정치의 남북간의 교착상태를 풀어나가는데 일조하는 것이 될 것이다. 오늘날 서구문명의 주도에 의한 근대화의 한계로 세계가 아시아의 철학에 관심하기에 이르렀고 세계정상회의에서는 서구측의 주도로 만들어진 의제21을 동양적인 관점에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동북아 여성환경인의 특수한 역할을 모색한다면 금번 세계지구정상회의에서 확실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목소리로써는 그 영향력이 약하다. 연대된 힘으로 이루어내야 한다. 그리고 여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끈질김을 발휘해야 한다.

VII. 맺는말

한국여성환경연대의 으뜸지기의 한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이 회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애쓴 3개국에서 선출되신 발제자, 토론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참가자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회의를 만들어낸 실무자들에게 사의를 표한다. 이 회의를 위해 재정후원, 장소후원, 그 밖의 물질적인 후원을 해주신 기관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끝으로 당부하는 것은 이 회의가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추진되어서 2002년 세계지구정상회의에서 동북아여성환경인들의 공동노력으로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